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 소 정**

초 록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이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성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요인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다차원적인 통합모형을 구축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반사회적 성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된 변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그리고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는 다른 형태의 음란물 노출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주제어 :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 반사회적 성의식

* 이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중앙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pink-vian@hanmail.net

I. 서론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칠 반사회적 영향력은 늘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의 원인으로 주요하게 거론되던 매체가 텔레비전에서 점차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미디어가 갖고 있는 다중양식(multimodal) 매체로서의 특성과 수평적·개방적·능동적·익명적·쌍방향적 공간 특성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들은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 또한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이준웅·장현미, 2007), 인터넷 상의 유해콘텐츠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특성을 모두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의 위력이 다른 미디어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 가장 친숙한 세대가 다름 아닌 청소년층이라는 사실은 인터넷 유해콘텐츠의 반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른바 N세대(N-Generation)¹⁾라 불리는 지금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의 유해 정보들을 자유롭게 검색하고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유해 정보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임상수, 2002). 특히, 연일 보도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이 경찰조사 결과 인터넷 음란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이윤주·박영흠, 2007. 4. 1), 전문가들은 이제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으로 인터넷을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유해 콘텐츠로 인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들이 점차 가시적으로 표출되면서, 정부는 청소년들을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법률적·제도적·기술적으로 다각적인 통제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많은 학자들과 법률가, 입법자들이 청소년보호에 관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김원경·나원갑, 2008). 그러나 이러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강력한

1) 인터넷 제너레이션(Internet Generation)을 줄인 말로, 미국의 사회학자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이 1997년, <디지털의 성장-넷 세대의 등장(In Growing Up Digital-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N세대를 「디지털기술, 특히 인터넷을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그것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생활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적인 삶을 영위하는 세대」로 규정했다.

법 조항이 마련되고 발전된 형태의 기술적 통제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유해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어, 현실적으로 유해콘텐츠에 대한 접근제한이나 규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 능력이 이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모의 인터넷 활용 능력을 훨씬 능가한다(Subrahmanyam, Greenfield, Kraut, & Gross, 2001)는 사실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장치들에 대한 회의를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은 인터넷 음란물과 청소년 성(性) 사회화 간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선행 요인들과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거나 역동적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연구의 원인변인이나 결과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음란물 노출 정도라는 핵심 변인을 측정하는데 있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미디어에서의 음란물 노출 측정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별 이용시간을 측정하는 등 연구들마다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음란물 노출 효과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 결과들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여 다음 연구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따른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사회화 문제가 인터넷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상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출판물 등 기존 매체를 통한 음란물 노출에 관한 연구들조차, 폭력물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음란물 노출이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성사회화에 강력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가에 대한 함의도 아직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효과로 분리되었던 기존의 연구들을 통합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다차원적 통합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들에

게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의 우려대로 상당히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청소년 음란물 노출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심리학(박윤창·김근영·윤진, 1996; 황상민, 1999)과 청소년학(고재홍·지영단, 2002; 남영옥·이상준, 2002; 이성식, 2004; 이소희·성윤숙, 2001; 이정운·이명화, 2003)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커뮤니케이션학이나 미디어학(김덕모, 2003; 김은미·나은영·박소라, 2007; 최명일, 2009)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학(이병환·손미희, 2009)이나 간호학(김현옥·박광숙, 2008)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음란물 효과 연구는 아직까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 행위에 관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범죄 원인 이론들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규명해 왔다. 때문에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관련 연구에서도 범죄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죄 원인 유형 즉,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선행 연구들은 감각추구성향(sensation-seeking tendency),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자기통제성(self-control)과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고찰하고 있는 심리학적 개념이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과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과 같이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고찰하고 있는 사회학 이론들을 토대로 청소년 음란물 노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1. 음란물 노출의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개인심리적 특성

청소년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음란물 노출 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을 보면, 감각 추구성향이나 자아존중감, 자기통제성 등이 음란물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음란물 노출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연구(Greenberg et al., 1992), 청소년 연구(Ybarra & Mitchell, 2005), 사회 및 발달 심리학(Collins et al., 2004; Goodson et al., 2001), 성과학(Vanwesenbeeck, 2001)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이 미디어 이용 특성과 함께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청소년 개인의 성격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Peter & Valkenburg, 2006a 재인용). 감각 추구성향이란 '신기성과 강한 감각성을 추구하려는 개인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일찍이 위험행동(도박, 과속, 다양한 성관계 등)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rnett, 1994), 사빈 윌리엄스와 다이아몬드(Savin-Williams & Diamond, 2004)의 연구에서도 높은 감각추구성향의 청소년들이 전형적으로 더 강한 음란 행동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음란출판물 노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박윤창·김근영·윤진, 1996)를 보면, 감각추구 하위차원(드릴·모험추구/경험추구/금지해제/권태민감성) 모두에서 감각추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음란출판물 노출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영향요인 연구에서도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et al., 2004; Vanwesenbeeck, 2001; 최명일, 2009).

음란물 노출의 또 다른 개인적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이 검증된 바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능력이 있고, 중요하며, 또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음란물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다는 카플란의 연구 결과(Caplan, 2000)가 나타나면서 청소년 음란물 노출 요인 연구에 있어 자아존중감 개념이 주목받게 되었다. 국내 연구(이정윤·이명화, 2003)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음란물 노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검증하고 있다.

자기통제성은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현숙, 1998). 자기통제의 실패는 충동조절 장애, 중독적 형태 등의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 자기통제성이 사이버섹스 중독(남영옥, 2004; 이상준, 2003)이나 음란물 노출 경험(김은미·나은영·박소라, 2007; 백혜정·김은정, 2008)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된 바 있다.

2) 사회맥락적 특성

청소년 음란물 노출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요인은 사회유대이론에 근거한 사회맥락적 특성들이다.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범죄 혹은 비행의 원인을 사회맥락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으로, 범죄나 일탈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다는 긍정적 영향의 부재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Hill & Atkinson, 1988). 사람들이 일탈적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일탈적 동기가 사회적인 유대(social bond)로부터 통제받고 있기 때문이며,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친구나 부모 등 일차 집단의 구성원들이나 학교와 직장 등의 이차 집단의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황성현, 2009).

청소년 음란물 노출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적 변인에 대한 검증이 많이 축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사이버 음란물 중독 증상이 더욱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남영옥·이상준, 2002),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또한 주요한 변인으로 검증되고 있다. 온라인 음란물을 고의적으로 추구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음란물 추구자들이 그들의 부모와 감정적 유대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으며(Ybarra & Mitchell, 2005), 국내에서도 부모의 무관심과 유대부족 등의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노성호, 1999; 윤영민, 2000). 메시의 연구(Mesch, 2009)에서는, 음란물 추구성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가족환경 변인 중, 주로 부모의 감시(monitoring) 측면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감시가 텔레비전에서의 성 표현물 노출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고 있다(Collins et al., 2004).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가 접하는 웹사이트의 유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을 얼마나 규제하고 있는가에 따라 인터넷 유해정보의 노출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들(Cho & Cheon, 2005; 김은미·나은영·박소라, 2007)도 제시되고 있다.

또다른 사회맥락적 특성으로는 학교에 대한 태도나 친구관계 혹은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변인들이 있다. 먼저, 학교에 대한 태도와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음란물 노출 경험이 높아진다는 결과(Mitchell et al., 2003)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동기 중 음란물 추구성 집단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다는 연구 결과(Mesch, 2009) 등이 있다.

친구는 가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와는 다른 성질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성 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남영옥, 2004). 선행 연구들에서는 친구들로부터 지지가 낮고 친구 수가 많지 않는 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청소년들일 수록 음란물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정윤·이명화, 2003; 이해경, 2002), 친구의 지지 혹은 친구관계가 좋을 수록 사이버섹스 중독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남영옥·이상준, 2002; 남영옥, 2004; 이상준, 2003).

그러나 친구의 유형에 따라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비행친구와 가깝게 지내는 경우에는 비행친구의 영향으로 인해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음란물 노출에 관한 선행 연구(Greenfield, 2004)에서는 또래집단 사이에서의 교환을 통해 의도적이지 않은 음란물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urg, 2008) 연구에서는 지각된 친구의 성경험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정적 상황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이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별접촉 이론을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덜랜드(E. H. Sutherland)는 일탈적 사회화가 일어나는 사회심리학적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차별접촉의 원리'이며, 이는 행위자가 순응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범위반을 장려하는 사람과 더 접촉하게 될 때 그 결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접촉 가능한 집단 가운데 일차적인 집단인 가정과 친구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행위자가 비행에 대해 호의적인 정의

에 노출되는 경우는 주로 친구집단을 통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1947). 즉,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가 많은 청소년이 건전하고 모범생인 친구가 많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친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3) 미디어관련 특성

그동안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 행태나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때문에 인터넷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게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가장 많이 검증된 요인으로는 인터넷 이용 시간이나 이용 경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소희·성운숙(2001)은 인터넷 이용 경력 및 빈도가 증가할수록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타났다(김은미·나은영·박소라, 2007; 안정임·김동규, 2000).

이 외에도 다른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 노출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 김영혜·이화자·정향미(2001)의 연구에서는 출판음란물이 컴퓨터 음란물에 노출되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최명일(2009)의 연구에서도 잡지, DVD, 비디오, 케이블TV와 같은 기존 매체 이용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urg, 2006a) 연구 역시 인터넷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한 성 표현물 노출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류진아·김광웅(2004)은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PC방의 접근성을 검증한 바 있다. 그러나 남영옥·이상준(2005)의 연구에서는 PC방의 접근성이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음란물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란물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공개된 장소인 PC방 등을 이용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물 등에 몰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선행 변인으로서 인터넷의 접근성이라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도구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음란물 노출과 청소년 성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음란물 노출의 영향력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 형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Harris, 1989). 실제로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성이나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들은 많이 축적되어 왔다(Mullin & Linz, 1995; Malamuth & Brieri, 1986; Jensen & Dines, 1998; Zillmann & Bryant, 1989). 예를 들어, 성폭력 영화를 본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게 비해 가정에서 남편에게 성폭행 당한 부인에 대해 덜 공감하고, 그녀의 피해를 덜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Mullin & Linz, 1995). 또한, 음란물에 많이 노출된 남자일수록 여성에 대해 더욱 반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Jensen & Dines, 1998; Zillmann & Bryant, 1989), 이는 대부분의 음란물이 남성 중심적, 성기 중심적, 이중적인 성의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여성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란물은 청소년들의 성 허용성(sexual permissiveness)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우먼과 스페너(Bowman & Spaner, 1978)는 혼전 성행위에 관한 도덕적 기준을 절제(abstinence), 애정적 허용성(permissiveness with affect), 비애정적 허용성(permissiveness without affect), 이중적 기준(double-standard)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음란물 노출이 절제와 애정적 허용성 뿐만이 아니라 비애정적 허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인터넷 음란물 관련 연구들에서도 검증되고 있다

1) 절제는 어떤 경우에도 남녀 간의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라는 도덕적 기준이며, 애정적 허용성은 상호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과 애정이 있는 한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에게 정당한 일이며, 따라서 도덕성 여부는 혼전 성 행위 자체보다 그에 따른 책임감에 달려 있다는 기준이다. 비애정적 허용성은 어떤 신체적 충동이 있다면 애정의 정도에 관계없이 혼전 성관계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중적 기준은 혼전 성관계가 남성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말한다.

(L'Engle, Brown, & Kenneavy, 2006; Peter & Valkenberg, 2008), 예를 들어,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음란물에 자주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사랑이나 관습 등에 얽매이지 않는 성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란물 노출이 성 허용성 뿐만 아니라 성 도구적 인식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검증되기도 했다(Lo & Wei, 2005; Peter & Valkenburg, 2006a).

국내 연구 또한 성의식과 관련하여 음란물의 부정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고재홍·지영단, 2002; 김영혜·이화자·정향미, 2001; 박윤창·김근영·윤진, 1996; 이세용, 2000; 이소희·성윤숙, 2001; 이정윤·이명화, 2003). 예를 들어, 박윤창·김근영·윤진(1996)의 연구에서는 음란잡지 및 음란출판물 노출을 기준으로 고등학생들을 음란물 상습접촉집단, 보통접촉집단, 비접촉집단으로 나누어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상습접촉집단이 보통접촉집단에 비해 남녀 간 성적 본능 및 성애(性愛)적 사랑²⁾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 콘텐츠 경험 여부에 따라 그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성 콘텐츠 접촉집단이 비접촉 집단에 비해 성에 대해 정신적·인성적 차원보다는 성기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성과 관련된 사회질서나 윤리, 도덕적 기준에 대해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윤·이명화, 2003). 이 외에도 음란물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혼전 성교나 혼외정사 등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고, 성이나 여성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이세용, 2000; 김영혜·이화자·정향미, 2001; 이소희·성윤숙, 2001; 최명일, 2009).

3. 청소년 성 사회화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 음란물 노출 및 영향력에 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고자하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음란물 노출 요인을 포함하지 않는 청소년의 성 사회화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 형성에 있어 음란물 노출이 갖는 의미를 깊이 있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음란물 노출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과의 영향력을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성적 본능 및 육체적 사랑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환경 요인으로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이나 부모의 지지 등과 같은 부모애착 그리고 부모감독과 가족 구조 등을 청소년 성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성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한 성적 행동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함이 검증되고 있으며 (Holtzman & Rubinson, 1995; Hutchinson & Cooney, 1998; Luster & Small, 1994),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 태도에 부모의 지지적인 관심과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tbeck, Conger & Kao, 1993). 브라이언과 락웰(Bryant & Rockwell, 1994)의 연구에서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텔레비전 내용에 노출되더라도 부모나 가정환경의 매개에 따라 부정적 효과들이 걸러진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유사한 수준의 선정적 프로그램을 시청할 지라도 가정에서의 가치관 교육이 강할수록 이것이 청소년의 가치관 혼동이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들은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 때 자녀의 위험 성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Abrahamse, Morrison, & Waite, 1988). 캣치 등의 연구(Kotchick, Shaffer, Forehand, & Miller, 2001)에서도 청소년 위험 성행동에 관련된 가족체계요인은 가족 구조, 의사소통, 부모감독으로 검증된 바 있다.

한편, 개인적 심리적 특성 변인과 청소년 성 사회화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감각추구성이 높을수록 극단적 성관계에 대한 허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심재웅 · 장은영, 2008)와 자기통제력 부족이 충동적인 성행동, 흡연, 음주, 약물남용과 같은 행위의 원인이 되거나(김두섭 · 민수홍, 1996), 혼전순결과 성매매에 대한 태도 등의 청소년 성의식에 영향 준다는 연구결과(백혜정 · 김은정, 2008) 등이 있다.

청소년 성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또래와의 관계 및 친구로부터의 지지(Harvey & Spigner, 1995)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 동안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청소년의 성행위는 친구의 성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만지, 2002), 브라운 등(Brown et al., 2006)도 이른 나이에 성경험과 같은 위험 성행동을 예측하는 변수 중 하나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친구에 대한 지각을 꼽고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 연구에서 검증된 변인들을 그대로 적용해 오면서도, 그러한 선행 변인들이 기존매체와 인터넷 매체에 있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찰이 부족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노출 변인의 경우,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 비의도적이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노출의 영향요인이나 그 결과를 검증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 음란물의 영향력을 고찰하는데 있어 의도적 노출과 비의도적 노출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비의도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었을 경우라도 그것이 반사회적 성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기술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경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방송통신위원회(2009b)의 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 노출 변인을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그리고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을 통해, 각 음란물 노출 유형별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1. 음란물 노출 유형에 따라 그 영향 요인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2.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은 음란물 노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편,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가장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가’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1.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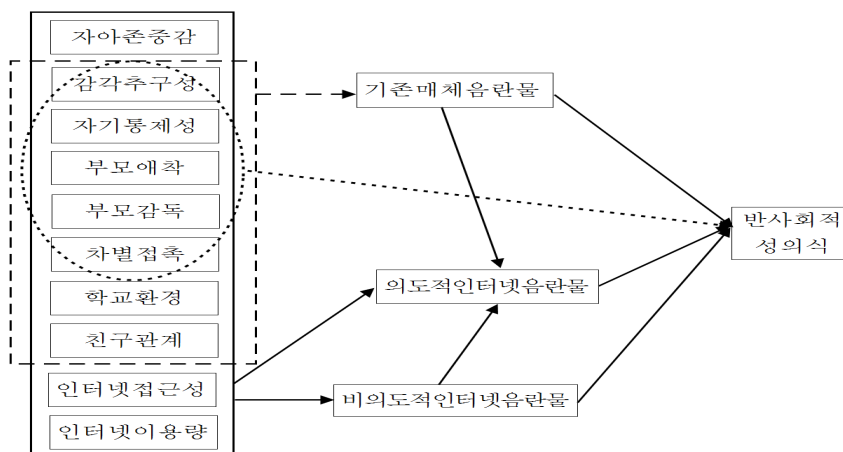
연구문제 2-2.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선행 요인들과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관계를, 그리고 선행 요인들과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사회화의 관계를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 요인들과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음란물 노출을 포함한 선행 요인들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이나 반사회적 성의식 형성에 어떤 선행 요인들이 어떤 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요인과 영향력에 관한 경로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을 예측하는 다차원적인 통합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으로써,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고 인터넷 음란물의 상대적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인들과 변인들 간의 경로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 비행행위에 관한 심리학적·사회학적 이론들과 이에 근거한 음란물 노출 관련 선행 연구의 검증 결과들을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이론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이론모형

이론모형에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 설정은 본 연구의 연구 목적에 맞게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변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따라서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이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간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논리적 흐름에 따라 기본적으로 비의도적 노출이 의도적 노출에 선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단,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모두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들은 추후 모델 적합도를 평가한 뒤 수

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의 검증 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경우, 청소년 문제행동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 결과들(Medora & Hellen, 1997; Robinson & Frank, 1994)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성이나 학교환경 변인 또한, 음란물 노출 관련 연구에서는 누적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외생변수로 설정하는 데 있어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확고하지 않다. 이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에서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접근성, 학교환경 변수를 제외한 대안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두 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도가 높게 나타난 모형을 중심으로 수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표본선정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설문은 2010년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2010년 3월 입학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1, 2, 3학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이 표집이 쉽지 않은 청소년층이라는 점과 설문이 성(性)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설문량이 저학년들이 하기에는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³⁾에 의뢰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사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설문을 실시하여 문항 내용의 수준과 형식을 수정하였다. 설문조사 이후 답변에 오류가 있는 응답지를 제거한 뒤, 중학생 200명과 고등학생 568명, 총 768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주요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인터넷 음란물 노출 및 그 효과에 관한 구조모형에 있어 외생변수로는 자아존중감, 감각추구성, 자기통제성, 부모애착, 부모감독, 학교환경, 친구관계, 차별접촉, 인터넷 접근성, 인터넷 이용량을 설정하였다. 내생변수는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 의도적 인터

3) 엔아이(NI) 리서치

넷 음란물 노출,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청소년 반사회적 성의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변수들 가운데 음란물 노출 관련 변인과 인터넷 이용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감정적·평가적 태도로서, 자신이 능력이 있고, 중요하며, 또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부적으로 측정된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감각추구성

감각추구성은 ‘신기하고 강력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성향’으로, Zucker만(Zuckerman, 1979)의 감각추구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내용 중 권태민감성, 경험추구, 탈억제 항목 10가지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각추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기통제성

자기통제성(Self-Control)은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김현숙, 1998)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1990)가 사용한 자기통제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이계원(2001)이 수정·보완한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적으로 측정된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계원(2001)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 값인 Cronbach's α 는 .74였다.

(4)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부모로부터 인지된 심리적·정서적 관심과 사랑에 의해 축적된 긍정적 유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보 등(Vaux et al., 1986)이 개발하고 한미현(1996)이 번역한 '사회적 지지 평가(The Social Support Appraisal)' 척도들 중 가족의 지지변인 문항(8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적적으로 측정된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5) 부모의 감독

부모의 감독은 허쉬(Hirschi, 1969)와 지베르딩 등(Sieverding et al., 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번안한 뒤,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6) 학교환경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을 학교에 대한 태도 변인과 교사의 지지 변인을 통합하여 측정하였다. 학교에 대한 태도는 메쉬(Mesch, 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교사의 지지는 보 등(Vaux et al., 1986)이 개발하고 한미현(1996)이 번역한 '사회적 지지 평가(SS-A: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척도 가운데 선생님 지지변인 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환경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7) 친구관계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맺고 있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으로, '친구로부터 인지된 사랑, 관심, 위로, 도움 등에 의해 형성되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 등(Vaux et al., 1986)이 개발하고 한미현(1996)이 번역한 '사회적 지지 평가(SS-A: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척도 가운데 '친구의 지지'를 나타내는 8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8) 차별접촉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 차별접촉의 개념을 ‘음란물 접촉이나 성관계 등과 같은 청소년 지위비행을 경험한 친구들과의 접촉 정도’로 한정하였으며,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관계 경험 친구의 지각 측정항목과 제서 등(Jessor, Van Den Bos, Vanderryn, Costa, & Turbin, 1995)이 사용한 친구모델 척도를 번안·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5개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음란물 경험이나 성경험 등이 있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인터넷 접근성

인터넷 접근성은 ‘인터넷을 집과 그 외 장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류진아의 연구(2004)와 김교정·서상현의 연구(2006)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10) 인터넷 이용량

인터넷 이용량은 일반 청소년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평일 인터넷 이용량과 주말 인터넷 이용량을 분리하여 측정한 뒤 합산 평균하였다.

(11)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은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6b)에서 이용한 측정 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소설책, 잡지, 만화책, 비디오 및 DVD, 케이블TV 등 인터넷 이외의 매체를 통한 음란물 노출 정도로 측정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음란물 노출이 이뤄지지 않고, 영화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청소년 출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소설책/잡지/만화책/비디오 및 DVD/케이블TV)를 통해 가슴이나 성기 등이 노출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소설책/잡지/만화책/비디오 및 DVD/케이블TV)를 통해 성행위가 묘사된 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이다. 이러한 10가지 항목은 1점(전혀 없다), 2점(한 달에 한번 이하), 3점(한 달에 2~3번),

4점(일주일에 한번), 5점(일주일에 여러 차례)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합산 평균하여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2) 인터넷 음란물 노출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6b) 그리고 로와 웨이(Lo & Wei, 2005)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번안 재구성한 뒤, 의도적 노출과 비의도적 노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본인 스스로 음란물을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 중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노출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의도하지 않게/의도적으로 “성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가슴이나 성기 등이 완전히 노출되는 (a)사진을 보았다/~(b)동영상을 보았다”, “성 행위를 하면서 가슴이나 성기 등이 완전히 노출되는 (c)사진을 보았다/~(d)동영상을 보았다”, (e) “가슴이나 성기 등을 묘사한 글을 보았다”, (f) “성행위를 묘사한 글을 보았다”, (g)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7가지 항목은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서와 동일한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항목을 합산 평균하여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도’와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도’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6b)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13) 반사회적 성의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을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용인되지 않는 성에 대한 그릇된 신념이나 자세”로 정의하였으며,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하여, 도구적 성 인식, 혼전 성 허용성, 혼외 성 허용성, 오락적 성 태도 등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그 개념을 측정하였다.

도구적 성(sex as objects) 인식은 워드(Ward, 2002)가 고안하고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7)가 보완한 척도와 최명일(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혼전 성 허용성(premarital permissive attitudes)은 세르나다와 그의 동료들(Cernada,

Chang, Lin, Sun, & Cernada, 1986),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8), 로와 웨이(Lo & Wei, 2005)의 연구 등에서 사용된 문항 가운데, 국내 상황에 맞지 않거나 중 고등학생에게 설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한 뒤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혼외(불륜) 성 허용성(attitudes toward extramarital sex)은 로와 웨이(Lo & Wei, 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변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오락적 성 태도(recreational attitudes toward sex)는 피터와 볼켄버그(Peter & Valkenberg, 2006b)의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을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반사회적 성의식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모두 합하여 그 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에 SPSS/WIN 12.0과 AMOS 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추출된 변인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s Coefficient 값을 활용하여 측정 변수의 내적 일치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값은 알파계수(α) 0.70이상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MOS 6.0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설정된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을 평가하였다. 해당 이론 개념을 측정항목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설명하는지 척도들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에 포함된 모든 연구개념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으로 모수를 추정하여, 신뢰도와 단일차원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단일차원에 대한 각 측정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chi^2(df, p)$, 기초부합지수(GFI), 수정부합지수(AGFI), 근사오차평균자승제곱근(RMSEA), 비교부합지수(CFI), 표준부합지수(NFI), 터커루이스지수(TLI) 값 등을 검토하였다. 부합도 지표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RMSEA < .05~.08을 제외한 다른 지표들은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Maruyama, 1998). 마지막으로 각 이론 개념이 서로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인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6.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성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적합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반적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후 이론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통계적 결과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모형 수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구축된 수정 모형이 이전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는지 그 통계적인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MOS BASIC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카이제곱 분포를 파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단일측정변수를 사용하여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일측정변수를 이용한 잠재변인분석은 윌리엄과 헤이저(Williams & Hazer, 1986)에 의해서 개념화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해 왔다(Aryee, Fields, & Luk, 1999; Carlson & Kacmar, 2000; Clugston, 2000; Frone, Russel, & Cooper, 1992; Mathieu, 1991). 이 방법은 각 척도들의 문항들을 평균하여 각 잠재변인에 하나의 측정변수를 만들어 전체 측정변수의 수를 줄이는 방법인데, 네트메이어와 동료들(Netemeyer, Johnston, & Burton, 1990)의 연구에서 측정오차를 교정한 단일측정 변수를 통한 방법과 다 측정변수들을 통한 방법 간에 모수치 추정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검증된 바 있다(김명자, 2002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쳐 다 문항으로 구성된 각 척도들을 합산 평균하여 단일 측정 변수로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통합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이론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chi^2=1639.688(53, p=.000)$, GFI=.729, AGFI=.463, RMSEA=.198, CFI=.455, NFI=.454, TLI=.065로 모든 적합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표준화지수인 회귀가중치(Regression Weights)를 살펴본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학교환경, 인터넷 접근성은 C.R.값(t-value)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 모형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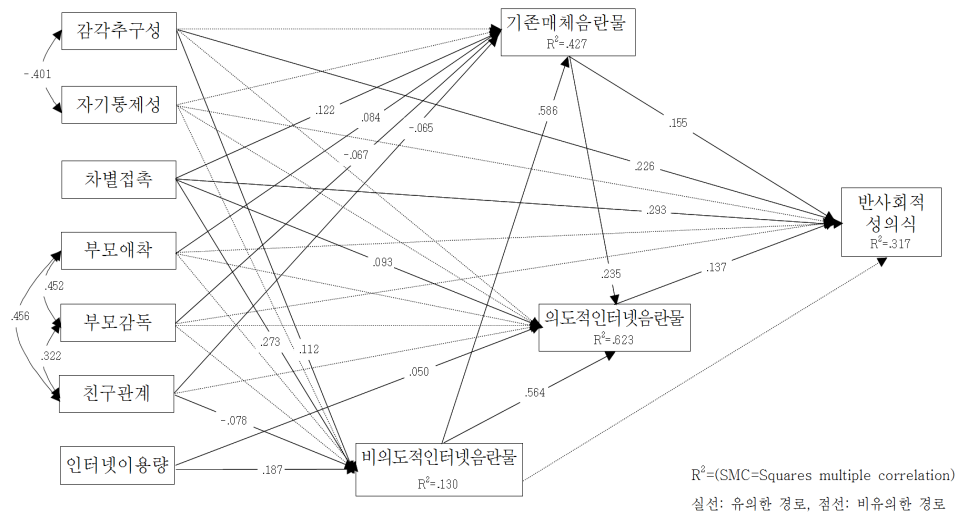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 학교환경, 인터넷 접근성을 제외한 대안모형에 대한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는 $\chi^2=952.638(25, p=.000)$, GFI=.824, AGFI=.535, RMSEA=.220, CFI=.586, NFI=.585, TLI=.090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수가 이론모델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χ^2 검증 결과, 이러한 대안모형이 이론모델에 비해 적합도가 의미 있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안모형의 경우에도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모형을 받아들일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안모델을 기준으로 모형 수정을 진행하였다. 모형 수정을 위한 진단지표로는 표준화 잔차(standardized residual)와 수정지수 값(MI) 그리고 모수 변화값(Par Change) 등의 통계적 기준이 고려되었으며, 이론적 근거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 대해 인과관계를 추가 설정하고, 개인심리특성 변인들 간(자기통제성↔감각추구성), 사회유대 변인들 간(부모애착↔부모감독), (부모감독↔친구관계), (부모애착↔친구관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설정에서는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이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과 기존매체를 통한 음란물 노출은 단선적이고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기본적으로 쌍방향적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비의도적 음란물 노출은 인터넷 매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기존매체를 통해 음란물 노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기통제성과 감각추구성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부적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으며,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친구관계 변인은 모두 사회유대이론에서 제시한 애착과 관련된 변인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였다.

<표 4-1> 이론모형, 대안모형, 수정모형의 적합도 평가

	χ^2	df	p	GFI	AGFI	RMSEA	CFI	NFI	TLI
이론모형	1639.688	53	.000	.729	.463	.198	.455	.454	.065
대안모형	952.638	25	.000	.824	.535	.220	.586	.585	.090
수정모형	161.391	29	.000	.964	.918	.077	.941	.929	.887

수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161.391(29, p=.000)$, GFI=.964, AGFI=.918, RMSEA=.077, CFI=.941, NFI=.929, TLI=.887로 나타나 이전 모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카이스퀘어 값($\chi^2=161.391, df=29, p=.000$)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표본수가 많을수록 불일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문수백, 2009), 본 연구의 표본수($n=768$)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합도 판단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수정모형이 적합도가 이전 모델인 대안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는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791.247, df=4, p=0.000$ 으로 p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이전모델과 수정모델의 적합도는 다르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최종 구조모형은 그림 4-1에서와 같이 확정되었다.



[그림 4-1]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통합모형

2. 연구문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통합모형을 근거로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음란물 노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연구문제 1-1〉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는 차별접촉($\beta=.093$, $p<.001$)과 인터넷 이용량($\beta=.050$, $p<.001$),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beta=.235$, $p<.001$) 그리고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beta=.564$,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추구성, 자기통제성, 부모애착, 부모감독, 친구관계 변인은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의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는, 감각추구성($\beta=.112$, $p<.01$), 차별접촉($\beta=.273$, $p<.001$), 인터넷 이용량($\beta=.187$, $p<.001$)이 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친구관계($\beta=-.078$, $p<.01$)는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성과 부모애착, 부모감독 변인은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의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는 부모감독($\beta=-.067$, $p<.01$), 친구관계($\beta=-.065$, $p<.01$)는 부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차별접촉($\beta=.122$, $p<.001$)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beta=.586$, $p<.001$)은 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한편, 부모애착($\beta=.084$, $p<.05$)은 예상과는 달리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추구성과 자기통제성은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이상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음란물 노출 유형에 따라 그 영향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감각추구성은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나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영향 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자기통제성은 모든 유형의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은 의도적·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는 오히려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접촉은 모든 유형의 음란물 노출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 변인은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제외한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인터넷 이용량의 경우에는 의도적·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는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이 음란물 노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 1-2〉를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beta=.564$, $p<.001$)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beta=.235$, $p<.001$), 차별접촉($\beta=.093$, $p<.05$)

그리고 인터넷 이용량($\beta=.050$, $p<.05$) 순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이들 변수에 의해서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설명되는 정도는 6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차별접촉($\beta=.273$, $p<.00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량($\beta=.187$, $p<.001$), 감각추구성($\beta=.112$, $p<.01$), 친구관계($\beta=-.078$, $p<.05$) 순으로 검증되었다. 이들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13.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특히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beta=.586$, $p<.001$)이 상당히 큰 영향 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차별접촉($\beta=.122$, $p<.001$), 부모애착($\beta=.084$, $p<.05$), 부모감독($\beta=-.067$, $p<.05$), 친구관계($\beta=-.065$, $p<.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는 42.7%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에서는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성의식 형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 요인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2-1〉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 결과, 감각추구성($\beta=.226$, $p<.001$), 차별접촉($\beta=.293$, $p<.001$),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beta=.155$, $p<.001$),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beta=.137$, $p<.001$)은 모두 반사회적 성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성, 부모애착, 부모감독과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 2-2〉인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사회적 성의식 형성이 감각추구성, 차별접촉,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라는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31.7%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차별접촉($\beta=.293$, $p<.001$) 변인이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감각추구성($\beta=.226$, $p<.001$),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beta=.155$, $p<.001$),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beta=.137$, $p<.01$) 순으로 검증되었다.

〈연구문제 3〉은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 요인 및 영향력에 관한 통합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표 4-2〉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진 검증 결과만 제시하였다. 먼저, 차별접촉이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로 가는 경로는 직접효과 ($\beta=.122$), 간접효과($\beta=.160$), 총효과($\beta=.282$)로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높은

청소년들이 비의도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많이 노출되면 기존매체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차별접촉이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과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로 가는 경로는 직접효과($\beta = .093$), 간접효과($\beta = .220$), 총효과($\beta = .313$)로 간접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차별접촉이 높은 청소년들이 기존매체를 통해 혹은 비의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이용량이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을 거쳐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이르는 경로는 직접효과($\beta = .050$), 간접효과($\beta = .094$), 총효과($\beta = .181$)로, 인터넷 이용량이 많은 청소년들이 비의도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의도적으로도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을 거쳐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이르게 되는 경로는 직접효과($\beta = .564$), 간접효과($\beta = .138$), 총효과($\beta = .702$)로 비의도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이 기존매체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접촉이 모든 유형의 음란물 노출을 거쳐 반사회적 성의식으로 가는 경로는 직접효과($\beta = .293$), 간접효과($\beta = .094$), 총효과($\beta = .388$)로, 비행친구 차별접촉이 높은 청소년들이 제시된 모든 유형의 음란물에 노출되면 성의식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음란물 노출 및 반사회적 성의식의 간접적 영향 요인 검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차별접촉→기존매체	.122	.160	.282
차별접촉→의도적 인터넷	.093	.220	.313
인터넷이용량→의도적 인터넷	.050	.094	.181
비의도적 인터넷→의도적 인터넷	.564	.138	.702
차별접촉→반사회적 성의식	.293	.094	.388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거쳐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 청소년들을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이르게 하는 선행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한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음란물 노출이 아닌 감각추구성 과 같은 개인특성과 차별접촉이라는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성 경험이나 음란물 노출 경험 등이 있는 친구들에 대한 차별접촉은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과 의도적·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차별접촉은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이나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그리고 반사회적 성의식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가운데 음란물 중독 문제가 있거나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음란물을 소비할 또 다른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친구로 인해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성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이 비행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 경험 자체를 문제시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기 이전에, 청소년들이 음란물 노출로 인해 성을 도구적으로 혹은 오락적으로 생각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음란물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성 관련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유의미하게 검증

된 다른 변인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이 반사회적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전체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 노출의 영향력이 차별접촉 변인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또 다른 형태의 음란물 노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기존매체를 통한 음란물 노출이나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들을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도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인터넷 음란물 노출을 인터넷에서만 문제로 독립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TV나 잡지 등 다른 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Peter & Valkenburg, 2006a; Ybarra & Mitchell, 2005; 최명일, 2009). 즉,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행위는 어떤 한 매체에 대한 혹은 어떤 한 유형에 대한 방지책을 세운다고 해서 감소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매체와 모든 유형에 걸쳐 예방책이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각 매체에 따라 그리고 노출 유형에 따라 특화된 예방책을 고안하되 이러한 예방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관련 변인은 인터넷 접근성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량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무조건 차단하기 보다는 인터넷을 정해진 시간 내에 꼭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모감독과 같은 가족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것으로 나타난 검증 결과는, 인터넷이 다른 미디어들과는 다른 차별적 특성 즉, 개인 미디어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모들의 인터넷 이용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며, 어떻게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고 어떻게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도 미디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론화하며, 부모들의 미디어 이용능력 증진을 통해 가정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지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의 경우 청소년들의 성의식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은 또한,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에 가장 강력한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결국 의도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혹은 기존매체 음란물을 소비할 개연성이 크며, 이것이 반사회적 성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차별접촉 및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인이나 감각추구성과 같은 개인 심리적 특성 그리고 인터넷 이용량과 같은 미디어 관련 특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UCC 같은 인터넷 콘텐츠나 채팅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정보에 의도하지 않게 노출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청소년들이 비의도적으로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재홍·지영단(2002).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간의 매개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제10권 제1호, pp. 87~105.
- 김교정·서상현(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변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1호, pp. 149~179.
- 김덕모(2003).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 행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
연구, 제3권 제3호, pp. 5~50.
- 김두섭·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김만지(2002). 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9권 제2호, pp. 71~86.
- 김명자(2002). 청소년의 학교폭력행위 예측모형구축.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혜·이화자·정향미(2001). 남자 중학생의 컴퓨터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간의
성지식과 태도의 차이. 아동간호학회지, 제7권 제1호, pp. 62~73.
- 김원경·나원갑(2008). 인터넷 규제와 청소년 보호 : 미국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pp. 33~62.
- 김은미·나은영·박소라(2007).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 정보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2호, pp. 209~257.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옥·박광숙(2008). 초·중·고등학생의 음란물 접촉 일부 행태. 아동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90~98.
- 남영옥(2004).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비행의 심리사회적 변인.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pp. 167~192.
- 남영옥·이상준(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pp. 185~212.
- 남영옥·이상준(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pp. 195~222.

- 노성호(1999).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접촉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류진아(2004).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진아·김광웅(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청소년 상담연구, 제12권 제1호, pp. 65~80.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윤창·김근영·윤진(1996). 음란출판물 접촉과 청소년의 성관련 태도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2호, pp. 79~90.
- 방송통신위원회(2009b). 방송통신 청소년 정보이용 건전화 실태조사 연구.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백혜정·김은정(2008). 청소년 성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심재용·장은영(2008). 다매체·다채널 환경에서 한국 청소년의 성콘텐츠 이용에 관한 연구: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을 중심으로. 서울: 방송문화진흥회.
- 안정임·김동규(2000). 청소년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 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 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 윤영민(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분석모형의 개발. 정보와 사회, 제2호, pp. 133~153.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환·손미희(2009).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 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 209~226.
- 이상준(2003).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한국 사회 복지학, 제55호, pp. 341~364.
- 이성식(2004).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22~45.
- 이세용(2000). 인터넷과 청소년의 성의식. 정보와 사회, 제2호, pp. 154~82.
- 이소희·성윤숙(2001). 인터넷음란정보와 청소년의 사이버일탈.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1호, pp. 111~24.
- 이윤주·박영흠(2007. 4. 1). 성범죄 저지르고 “내가 뭘” 청소년 죄의식 죽이는 인터넷 음란물. 『경향신문』. Available : <http://news.nate.com/view/20070401n07563>

- 이정윤 · 이명화(2003).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의 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1호, pp. 32~41.
- 이준용 · 장현미(2007). 인터넷 이용이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2호, pp. 363~391.
- 이해경(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독 경험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예측 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2호, pp. 165~190.
- 임상수(2002).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성윤리 교육 : 사이버포르노에 대한 정보윤리의 대응방안. 국민윤리연구, 제51호, pp. 9~111.
- 최명일(2009).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음란물 노출이 실제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2호, pp. 49~69.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상민(1999). 음란 · 폭력간행물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 유관모형의 허상과 발달심리적 이해. 인문과학, 제81권, pp. 241~264.
- 황성현(2009). 청소년 음주 · 흡연행위에 관한 사회유대, 자이통제, 사회학습이론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52호, pp. 113~139.
- Abrahamse, A. F., Morrison, P. A., & Waite, C. J. (1998). Teenager's willingness to consider single parenthood: Who is at greater risk?.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20*, pp. 13-18.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 Vol. 16 No. 2*, pp. 289-296.
- Aryee, S., Fields, D., & Luk, V. (1999). A cross-cultural test of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Management, Vol. 25 No. 4*, pp. 491-511.
- Bowman, H. A., & Spaner, G. B. (1978). *Modern marriage*. New York: McGraw-Hill.
- Brown, J. D., L'Engle, K. L., Pardun, C. J., Guo, G., Kenneavy, K., & Jackson, C. (2006). Sexy media matter: Exposure to sexual content in music, movies, television, and magazines predicts black and white adolescents' sexual behavior. *Pediatrics, Vol. 117 No. 4*, pp. 1018-1027.

- Bryant, J., & Rockwell, S. C. (1994). Effects of massive exposure to sexually oriented prime-time television programming on adolescents' moral judgement. In D. Zillman, J. Bryant, & A. C. Huston (Eds.), *Media, Children and the Family* (pp. 183-19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aplan, S. E. (2000).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Development of a theory-based cognitive-behavioral measurement instrum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18*, pp. 563-575.
- Carlson, D. S., & Kacmar, K. M. (2000). Work-family conflict in the organization: Do life role value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Management, Vol. 26 No. 5*, pp. 1031-1054.
- Cernada, G. P., Chang, M., Lin, H., Sun, T., & Cernada, C. (1986). Implications for adolescent sex education in Taiwan.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7 No. 4*, pp. 181-187.
- Cho, C., & Cheon, H. (2005). Children's exposure to negative Internet content: Effects of family contex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49 No. 4*, pp. 488-509.
- Clugston, M. (2000). The mediating effects of multidimensional commitment 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 to lea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21 No. 4*, pp. 477-486.
- Collins, R. L., Elliott, M. N., Berry, S. H., Kanouse, D. E., Kunkel, D., Hunter, S. B., & Miu, A. (2004). Watching sex on television predicts adolescent initiation of sexual behavior. *Pediatrics, Vol. 114*, pp. 280-289.
- Frone, M. R., Russe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7 No. 1*, pp. 65-78.
- Goodson, P., McCormick, D., & Evans, A. (2001). Searching for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An exploratory study of college students' behavior and attitud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30*, pp. 101-118.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B. S., Linsangan, R., Soderman, A., Heeter, C., Lin, C., & Stanley, C. (1992). Adolescents' exposure to television and movie sex. In B. S. Greenberg, J. D. Brown & N. Buerkel-Rothfuss (Eds.), *Media, sex, and the adolescent* (pp. 61-98). Creskill, NJ: Hampton.
- Harris, R. J. (1989). *Cognitive psychology of mass communication*. 이창근 · 김광수 공역 (1991). 매스미디어 심리학. 서울: 나남출판.
- Harvey, S. M., & Spigner, G. (1995). Factors associate with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A multivariate analysis. *Adolescent, Vol. 30*, pp. 253-264.
- Hill, G. D., & M. P. Atkinson (1988). Gender, Familial Control,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6 No. 1*, pp. 127-149.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tzman, D., & Rubinson, R. (1995). Parent and peer communication Effects on AIDS-related behavior among U.S. high school studen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27*, pp. 235-240.
- Hutchinson M. K., & Cooney T. M. (1998). Patterns of parent-teen sexual risk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Family Relations, Vol. 47*, pp. 185-194.
- Jensen R., & Dines G. (1998). The content of mass-marketed pornography. In G. Dines, R. Jensen & A. Russo (Eds.), *Pornography: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inequality* (pp. 66-100). New York: Routledge.
- Jessor, R. J.,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1*, pp. 923-933.
- L'Engle, K., Brown, J., & Kenneavy, K. (2006). The mass media are an important context for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38*, pp. 186-192.
- Lo, V. H., & Wei, R.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aiwanese

-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49 No. 2, pp. 221-237.
- Luster, T., & Small, S. A.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Vol. 56, pp. 622-632.
- Malamuth, N. M., & Briere, J. (1986). Sexual violence in the media: Indirect effects on aggression against wome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2, No. 3, pp. 75-92.
-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CA: Sage.
- Mathieu, J. E. (1991). A cross-level nonrecursive model of the anteceden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6, No. 5, pp. 607-618.
- Medora, N. P., & Von der Hellen, C. (1997). Romanticism and self-esteem among teen mothers. *Adolescence*, Vol. 32 No. 4, pp. 811~824.
- Mesch, G. S. (2009). Social bonds and Internet pornographic expo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 32 No. 3, pp. 601-18.
- Mitchell, K. J., Finkelhor, D., & Wolak, J. (2003). The exposure of youth to unwanted sexual material on the Internet. *Youth & Society*, Vol. 34 No. 3, pp. 330-358.
- Mullin, C. R., & Linz, D. (1995). Desensitization and resensitization to violence against women: Effects of exposure to sexually violent films on judgment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69, pp. 449-459.
- Netemeyer, R. G., Johnston, M. W., & Burton, S. (1990). Analysis of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in a structural equations frame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5, pp. 148-157.
- Peter, J., & Valkenburg, P. M. (2006a).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 on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Vol. 33 No. 2, pp.

178-204.

- Peter, J., & Valkenburg, P. M. (2006b).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and recreational attitudes toward sex.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6*, pp. 639-660.
- Peter, J., & Valkenburg, P. M. (2007). Adolescents' exposure to a sexualized media environment and notions of women as sex objects. *Sex Roles, Vol. 56*, pp. 381-395.
- Peter, J., & Valkenburg, P. M. (2008).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Internet material, sexual uncertainty, and attitudes toward uncommitted sexual exploration: Is there a link?. *Communication Research, Vol. 35*, pp. 579-602.
- Robinson, R. B., & Frank, D. I. (1994).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xual activity, and pregnancy. *Adolescence, Vol. 2 No. 1*, pp. 1-2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vin-Williams, R. C., & Diamond, L. M. (2004). Sex.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2nd Ed.)(pp. 189-231). New York: John Wiley.
- Sieverding, J., Adler, N., Witt, S. & Ellen, J. (2005). The influence of parental monitoring on adolescent sexual initiation.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Vol. 159*, pp. 724-729.
- Subrahmanyam, K., & Greenfield, P., & Kraut, R., & Gross, E. (2001). The impact of computer use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pp. 7-30.
- Sutherland, Edwin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4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 Vanwesenbeeck, I. (2001). Psychosexual correlates of viewing sexually explicit sex on television among women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Sex Research, Vol. 38*, pp. 361-368.

- Vaux, A., Phillips, J., Holly, L., Thomson, B., Williams, D., & Stewart, D. (1986). 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S-A) scale: Studie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pp. 195-219.
- Ward, L. M. (2002). Does television exposure affect emerging adults' attitudes and assumptions about sexual relationships?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confirmation.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Vol. 31*, pp. 1-15.
- Whitbeck, L. B., Conger, R. D., & Kao, M. Y. (1993).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depressed affect, and peers on the sexual behaviors of adolescent girl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14*, pp. 261-278.
- Williams, L. J., & Hazer, J. T. (1986).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turnover models: A reanalysis using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ethod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1*, pp. 219-231.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national survey.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8*, pp. 473-486.
- Zillmann, D., & Bryant, J. (1989). *Pornography: Research advances and policy considerations*. Hillsdale, NJ: Erlbaum.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Measurement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J. Strelau, F. H. Farley, & A. Gale (Eds.), *The biological bases of personality and behavior: Theories, measurement techniques, and development*(Vol. 1). Washington: Hemisphere.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upon the Shaping of Adolescents' Antisocial Sexual Consciousness

Yang, So-Jung*

This study had its origins in the following question; "I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a powerful and firsthand negative influential factor upon the shaping of adolescents' sexual consciousness or not?"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issue, the present researcher established a multi-dimensional comprehensive model to analyze the factors involved and the the impact of adolescents' exposure to the sexually explicit materials from the Internet.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study questions were then examined.

The study empirically indicates that among all the variables examined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shaping of adolescents' antisocial sexual consciousness through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intentional exposure was the lowest and the weakest in terms of explaining antisocial sexual consciousness. Furthermore, unintentional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had no firsthand influence upon this consciousness. The findings also imply that there is a difference among the influential factors in terms of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exposure to the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and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from more traditional media forms. In particular, the relatively most influential factor upon intentional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was the experience of exposure to different pattern-based sexually explicit materials.

Key Words : the exposure to the Internet-oriented sexually explicit materials, the exposure to the traditional media-oriented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tisocial sexual consciousness

투고일 : 9월 7일, 심사일 : 9월 17일, 심사완료일 : 10월 26일

*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